

광주 구직자 10명당 일자리 2.7개뿐

구직자 대비 일자리 역대 최저 전남은 5.9개...전년대비 하락 청년 실업률 6~7%대 악화일로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내수 경기가 침체하면서 지난해 광주지역 구직자들이 도전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정보포털 '고용24'를 통해 집계한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의 수)는 광주 0.27·전남 0.59로, 전년(광주 0.35·전남 0.73)보다 하락했다.

구인배수는 신규 구인인원을 신규 구직건수로 나눈 고용지표 중 하나이다.

광주 구인배수는 3년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통계로 2003년(0.60)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0.48까지 내려간 뒤 2021년 0.56, 2022년 0.59로 회복세를 나

타내다가 2023년 0.44, 2024년 0.35 등으로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광주 구인배수가 0.2대로 떨어진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전남 구인배수도 2022년 1.03, 2023년 0.97, 2024년 0.73, 지난해 0.59 등으로 3년 연속 떨어졌다.

지난해 광주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14만 5118명이었고, 기업에서 사람을 구하는 수는 3만 9571명이었다. 전남 구직은 13만 1371명, 구인은 7만 7287명으로 집계됐다.

광주 구인배수는 전국 평균 0.39를 밑돌며 대전(0.22)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부족한 일자리 수 외에도 답답한 지역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는 많다.

지난달 광주 실업률은 4.6%로,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 달 기준 광주 실업률은 2023년 2.6%, 2024년 3.7%, 지난해 4.0%, 올해 1월 4.6%로 오르고 있다.

전남 실업률은 6.3%로 강원(6.5%)에 이어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높았고, 광주와 전남 모두 전국 평균 실업률(4.1%)을 웃돌았다.

청년 취업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역 15~29세 청년실업률은 7.1%로, 전북(8.7%)에 이어 대구·인천과 함께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전남 청년실업률은 6.0%로, 전북(8.7%)·경북(6.8%)에 이어 도(道) 지역 가운데 높은 편이었다.

기업의 고용이 크게 줄어든 건 지역 주요 산업의 침체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광주·전남 건설업 채용(상용+임시일용) 인원은 2만 9196명으로, 전년(3만 3445명)보다 12.7%(4249명) 줄었다. 도·소매업 채용은 3480명에서 2814명으로 19.1%(666명) 감소했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1337명에서 839명으로 37.2%(498명) 줄었다.

광주에서 숙박·음식점업 채용은 17.6%(770명) 줄었고, 전남 제조업 채용은 12.0%(747명)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예비부부에게 웨딩 페어 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 올 첫 웨딩페어

역대급 규모...혜택도 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3월 2일까지 올해 첫 웨딩 페어인 '올 어바웃 프리미엄 웨딩'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웨딩 페어는 매년 행사 때마다 고객 수요가 높은 프리미엄 가구, 패션 브랜드 등을 중심으로 웨딩 관련 전 카테고리에 걸쳐 참여 브랜드를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해외 럭셔리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 상품군에서 에이스, 시몬스, 템퍼자코모 등이, 패션 상품군에서는 피어리, 오브제, 구호 등이 참여한다.

참여 브랜드 확대도 예비부부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웨딩마일리지' 적립 기회도 늘렸다. 웨딩마일리지는 롯데웨딩멤버스 가입 후 9개월 동안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한 금액을 적립해 누계 적립 금액의 최대 7% 상당을 롯데상품권으로 증명하는 리워드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해외 명품, 시계·보석, 가

구 등 주요 혼수카테고리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2배를 적립해주는 더블 적립 이벤트와 패션 및 소형 가전 구매 시 추가 50% 적립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 오는 24일까지는 기존 회원의 추천인 코드로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 10만 웰컴 웨딩마일리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펼쳐진다.

롯데백화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단독 협업 상품도 선보인다. 이번 웨딩 페어를 위해 롯데백화점 8층에 입점한 '몽키우드' 매장에서는 '포세린 테이블 세트'를 준비했다. 4인용과 6인용 테이블을 각각 100개씩 마련했다.

이 밖에 소품 편의성을 높인 '프리미엄 웨딩답례품 전문관'도 운영한다. 전문관은 전통 답례품부터 이색 선물까지 비교해 구매할 수 있는 유용사 유일의 답례품 물로, 지난해 4월 처음 오픈해 '맞춤 추천'과 '선물 포장 서비스'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소진공, 법인기업 행정서류 제출 간소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법인기업의 행정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 마이데이터는 법인기업이 전자서명과 인증만으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행정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등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로 연계되는 행정 서류는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 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등 모두 8종이다.

소진공은 앞서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인터넷 소진공 이사장은 "기업 마이데이터 도입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함과 동시에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퇴출...지배주주 같으면 통합심사"

지배주주가 동일한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통합·일괄 심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퇴출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9일 "2026년 코스닥 시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기업 중 지배주주가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는 통합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실질심사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심사업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최장 1년 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도 1년으로 단축하고, 개선기간을 부여

할 때도 개선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을 엄격히 검증해 시장 잔류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결과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계획 이행 점검도 강화된다. 개선기간 중인 실질심사대상 기업이라고 해도 상장 적격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영업 지속성 등을 상실했다고 보이면 시장에서 조기 퇴출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에 반기 기준으로도 자본전액잠식시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실질심사 사유가 되는 불성실 공시 관련 누적 벌점 기준도 1년간 10점으로 하향하는 동시에 중대·고의 위반을 추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연휴 끝나자 코스피 불장...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닥 장중 매수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가 설 연휴 동안 숨을 고른 직후 첫 거래일인 19일 567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전반적인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했다. 더불어 코스닥 역시 치솟아 장중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13일) 대비 170.24포인트(p) 오른 5677.25에 장을 마쳤다. 올해 초부터 연이어 신고가를 경신한 코스피가 설 연휴에 돌입하기 직전 장에서 15.26p(0.28%) 하락했지만, 연휴 직후 급반등세를 보였다.

이날 장에서는 기관이 1조 6381억원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도 각각 8608억원, 9232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코스피 상승 역시 대형주들이 선전했다. 삼성전자가 전장 대비 4.86% 올라 증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19만전자'를 달성했다. 이어 SK하이닉스도 장중 9000원을 터치한 뒤, 전장보다 1.59%

오른 89만 4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 밖에 현대차(2.81%), LG에너지솔루션(2.15%), 삼성바이오로직스(0.58%), SK스퀘어(1.43%), 기아(3.60%), 두산에너지빌리티(1.76%) 등도 상승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올해 내로 코스피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나증권에서는 코스피의 고점을 7870선 수준으로, NH투자증권도 7300, 유안타증권은 6300으로 목표치 상단을 올려잡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5677.25 (+170.24)
↑ 코스닥	1160.71 (+54.63)
↑ 금리(국고채 3년)	3.178 (+0.036)
↑ 환율(US D)	1445.70 (+0.80)
<small><오후 5시 40분 기준></small>	

광주은행 설 귀성객 1인 1계좌 갖기·고향사랑 기부제 가두 캠페인

임직원 180명 참여...기념품 전달도

광주은행은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1인 1계좌 갖기'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송정역과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전남 목포역·순천역, 서울 용산역 등 주요 교통 거점에서 동시에 진행했으며, 전남·광주 행정 통합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상생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정일선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원과 본부 부서장, 광주·전남 및 수도권 영업점 직원 등 180여명이 참여해,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 리플렛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최근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추세가 지속되면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광주은행은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을 통해 지역은행 이용을 확대하고, 지역 자금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병행해 제도의 취지와 참여 방법, 세액공제 혜택 및 답례품 제공



정일선(오른쪽) 광주은행장이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1인 1계좌 갖기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리플렛을 나눠주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등 실질적인 정보를 안내했다. 특히 타 지역 거주자도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 광주·전남 지역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지역 금융은 곧 지역 경

쟁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가두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주담대 변동금리 다섯달 만에 하락...1월 코픽스 0.12%p ↓

신규취급액 기준 연 2.77%

잔액·신잔액 코픽스는 0.01%p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다섯 달 만에 하락했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작년 12월(연 2.89%)보다 0.12%포인트(p) 낮은 2.77%로 집계됐다.

반대로 잔액 기준 코픽스는 2.84%에서 2.85%로 0.01%p 높아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

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의 경우 2.47%에서 2.48%로 0.01%p 올랐다. 신 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

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된다.

시중 은행들은 이르면 20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4.22~5.62%에서 4.10~5.50%로 0.12%p 낮아진다. 같은 기준의 전세자금 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3.95~5.35%에서 3.83~5.23%로 인하된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역시 4.41~5.61%에서 4.29~5.49%로 내린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 제도기간 운영...교육·지원·홍보 집중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3대 의무보험과 관련해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간 제도기간(2026년 2월 15일~2027년 2월 14일)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3대 의무보험은 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 안전보험·상해보험으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적용됐다. 가입 기간 내 보험에 들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제도기간 1년 간 차별보다 교육과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부터 보험 가입 이행 확인서를 받고, 지방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연중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공무원 대상 현장 지원 교육을 맡고,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용프로그램을 통해 보험 가입과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 전국 농촌인력증가센터도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농협에 전달 상담사를 배치해 의무보험 가입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대 의무보험은 사고나 임금체불 등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 안전장치"라며 "제도기간 찾아가는 설명회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G마켓, 진도 특산물 할인 "지역 농수산물 판로 지원"

G마켓(지마켓)은 "오는 28일까지 '진도인즈 특별기획전'을 열고 진도산 먹거리 14종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 사업으로 기획됐다.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진도 식품 브랜드인 '진도인즈'의 간편식과 지역 특산물을 한자리에 모았다.

주요 판매 상품은 전복죽, 활전복, 전복 톳 미역국, 곱창김, 쌀 등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건강식품 시리즈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대 1만원까지 할인되는 기획전 상품 전용 '20% 할인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G마켓 관계자는 "지역 생산자 브랜드의 온라인 판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라며 "지역 특산물이 전국 소비자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플랫폼 차원의 마케팅·유통 인프라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